

도시신혼기가계의 경제구조, 주거실태 및 선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Family Economic Structures, Housing States, and Housing Preferences of Urban Establishing Families

서울대학교 소비자·아동학과 교수 이 기 춘
서울대학교 소비자·아동학과 강사 조 은 정
한남대학교 가정교육과 강사 민 현 선
서울대학교 소비자·아동학과 대학원생 정 은 주

Dept.of Consumer Studies and Child Development, Seoul National Univ.

Prof.; Kee Choon Rhee

Dept.of Consumer Studies and Child Development, Seoul National Univ.

Lecturer; Eun Jung Cho

Dept.of Home Economics Education, Han Nam Univ.

Lecturer; Hyun Sun Min

Dept.of Consumer Studies and Child Development, Seoul National Univ.

Graduate School Student; Eun Joo Chung

〈목 차〉

I. 서 론

II. 연구방법

III. 결과 및 논의

IV. 결 론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gure out the urban establishing families' economic structures(income, expenditure, assets, first-present-future housing cost etc.), the states of first-present housing , the future housing plans, and the housing preferences.

For this purpose 274 establishing families in Seoul and its metro-politan area were interviewed through the standardized questionnaires. Finally 264 questionnaires were analyzed.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 본 논문은 (주)한샘의 연구비지원으로 이루어졌음.

1. The important source of their monthly incomes was the labor income. But there was often the transfer income from their parents. And the important items of monthly expenditures were savings and foods. In higher income classes, the traffic cost was important relatively.

2. It was found that the urban establishing families were very dependent on their parents for their first-present housing costs. The dependency was stronger in high education classes compared to the low. This was the case in future housing costs.

3. The states and changes of first-present housing showed the demands for an apartment, homeownership, and privacy. These tendencies were higher in high education classes compared to low education classes, but the demands for future housing were according to the monthly income. The present locations were determined majorly by the distance from office and parents.

4. Their housing preferences were different from the present housing states. Furnished rental housing, open living space, large common spaces, and common using of unusual appliances etc. were more preferred by high education classes compared to low education classes.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한 가정은 두 사람의 결혼으로 성립되어 자녀를 가지게 되면서 서서히 확대되었다가 자녀가 성장하고 독립하면서부터 다시 축소되기 시작하여 마지막 자녀의 독립과 더불어 다시 부부 두 사람의 가정이 되는 과정을 밟게 되며 이를 가족생활주기라고 한다.

개인의 올바른 성장발달을 위해서는 태내부터 아동기까지가 매우 중요한 것과 마찬가지로 한 가정이 노동력재생산이라는 기능을 올바로 수행하여 개인과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그 초기형성단계가 매우 중요하다. 가족생활주기단계는 연구목적에 따라 세밀한 단계 구분이 달라지기는 하나 대체로 형성기, 가정확립기, 신혼부부기 등이 신혼기를 지칭하는 일반적인 말이다. 구체적으로 이 시기는 두 부부가 가정생활하는 방법을 습득해 나가는 시기이며, 가정생활의 틀이 형성되는 시기이므로 중요한 단계이다. 특히 평생에 대한 경제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이기춘, 1991). 계층과 문화마다 다르겠지만 신혼기가계의 경제적인 과업 중 대표적으로는 안정된 거

주의 확보와 만족스런 소득, 지출상의 체계수립을 들 수 있다(유영주 등, 1990). 그 외에 내구소비재구입 등 경제적인 해결을 필요로 하는 문제가 이 때에 계획되어야 한다. 또한 이 시기는 다른 단계들에 비해서 비교적 지출이 적은 시기이므로 장래 지출이 큰 시기를 대비해서 충분한 저축을 해야 하며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비생활태도와 습관을 형성해야 한다(이기춘, 1991).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에서는 한 가정이 출발하면서 유의해야 할 각종 과업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이 거의 개발되어 있지 않다. 가정생활이란 그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또 여성 일방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라는 보수적인 전통에서는 올바른 가정의 출발을 위한 교육이 전혀 이루어질 수 없었다. 최근에는 학교교육에서도 이 문제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기는 하나, 실증적 연구 자료에 기초하지 못하여 실질적인 지침이 되지 못하는 수준이다. 한편 각종 대중매체와 여성잡지가 다양화되면서 이런 문제를 다루고는 있으나 그 성격상 흥미위주로 실생활과는 거리가 멀다. 다만 한 가정을 형성하여 분가하기는 하되 그 생활이 독립적이지 못한 모습, 또한 가정의 형성에 필요한 각종 자원을 부모들에게 의존하는 모습 등, 물질적인 풍요와 부

모로부터의 과잉보호 속에서 성장한 신세대들의 생활양식이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앞으로 21세기 한국사회의 발전을 담당할 이들의 생활에 올바르고 실효성 있는 지침이 시급하다는 점에서, 그리고 그 지침을 위한 세밀한 조사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신혼기가계의 경제구조와 주거실태를 주요 연구문제로 설정하였다. 나아가 신혼기가계의 고유한 주생활 욕구(이혜선, 1987)를 수용할 수 있는 주거공급의 재안을 위해 이들의 주거선호내용을 간단히 파악하고자 하였다. 개별가족이 만족스런 주생활을 한다는 것은 현재와 미래의 훌륭한 노동력재생산을 통해 사회발전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는 것임과 동시에 안정적인 가계 및 국가경제를 보장하는 것이다(하성규, 1991). 그러나 우리사회의 현실은 주택의 절대량부족 문제에서 탈피하지 못하여, 개별가족의 주거선호를 반영하지 못하는 획일적인 주거공급에서 그치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생활양식에 적합하며, 사회의 변화에 부응할 수 있으며, 그리고 주생활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는 신혼기주거의 모습을 추론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신혼기가계의 소득과 지출, 자산상태에 대한 세밀한 구조를 파악하고,
2. 신혼주거, 현주거, 희망주거의 자금조달구조를 분석한다.
3. 신혼주거와 현주거의 물리적 상황과 앞으로 실행코자 하는 주거조절계획에 대해 조사하며,
4. 끝으로 주거내·외부에 대한 신혼기가계의 선호를 개괄적으로 살펴 본다.

2. 연구의 범위

본 연구에서 범위를 구체화시켜야 할 영역은 (1) 신혼기가계 (2) 경제구조 (3) 주거실태와 선호이다.

(1) 신혼기의 단계구분은 연구주체에 따라 매우 달라진다. 본 연구에서는 경제구조와 주거실태가 연구주체이므로 자녀와 결혼지속년수를 기준으로 하였다. 결혼연령의 다양화에 따라 부부의 연령보다는 결혼지속년수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동질적인 주거욕구가 반영된 주거실태의 파악을 위해 자녀의 수와 연령을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따라서 아직 자녀가 없거나 그 연령이 3세 이하로 독립적인 방과 교육시설이 중요하지 않은 가계를 대상으로 하게 되었고 이는 자연스럽게 결혼지속년수 4년 이내라는 기준으로 이어졌다. 결혼한 지 4년 이상이라도 가족계획에 따라 자녀가 없는 경우, 또는 결혼한 지 4년 이내에 만자녀의 연령이 3세 이하이나 둘째 자녀가 있는 경우 등은 전형적인 신혼기가계의 특성에 어긋난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설정한 신혼기가계는 유형주 등(1990)의 분류에 따르면 신혼부부기-임신기-신생아기자녀-영아기자녀 가족까지와 대체로 일치한다.

(2) 신혼기가계의 경제구조는 크게 현재의 경제상태와 주거마련자금으로 설정하였다. 현재의 경제상태는 소득, 지출, 자산으로 나누어지는데 소득은 가계총소득 외에 가구주근로소득, 주부근로소득, 재산소득, 시택·친정보조 등의 소득원천별 금액을 파악하였으며, 지출은 총지출액 외에 저축, 식료품비, 부채상환액 등 비목별 지출액을 조사하였다. 소득과 지출 조사단위는 1개월로 하였다. 자산상태는 동산부문으로 현재의 적금, 정기예금, 저축성예금의 잔고를 모두 조사하였으며 부동산부문으로 현주거의 가치를 조사하였다. 여기서 총부채액과 현주거이외의 부동산액은 제외하였는데, 예비조사결과 이러한 경우가 많지 않았으며 조사대상자가 응답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주거마련자금으로는 결혼 후 처음 생활한 주거와 현재의 주거에 대해 각 자금원천별 총액을 조사하였으며 미래의 희망주거에 대해서는 이용하고자 계획하고 있는 자금원만을 조사하였다.

(3) 신혼기가계의 주거실태에서는 ① 주거내부에 대해 신혼주거·현주거·희망주거 각각의 주거유형, 소유형태, 사용면적, 사용구조, 공동사용공간 등의 세밀한 항목을 포함하였고 ② 외부환경에 대해서는 현주거지역 선정이유와 자녀관련시설만을 포함하였다. 또한 주거선호에 있어서는 신세대의 실리적이고 합리적인 태도를 반영하는 문제를 가구, 내부공간구조, 탁아시설, 기타 외부환경시설 등에 대해 조사하였다.

이는 현재 서서히 대두되고 있는 후기산업시대 소비자가치(Stampfl, 1982)가 앞으로 우리사회의 새로운 주거양식으로 등장할 것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즉 자신의 소비가 사회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인식하며 물질적소유보다는 사용자체에 관심을 가지며 편리함을 추구하나 그 비용도 고려하며 필요한만큼 소비하는 것을 바람직하게 여기는 의식이 주거환경에도 반영되어 실리적인 공간사용과 공동체적 생활모습에 대해서 긍정적인 선호를 나타낼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II. 연구방법

1. 조사도구

조사도구는 표준화된 질문지로서, 예비조사를 통해 보완하였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일반적 특성-연령, 직업, 교육수준, 거주지역 등.
- ② 경제상태-소득구조, 지출구조, 자산상태.
- ③ 신혼주거-신혼주거의 물리적 상황과 자금조달구조.
- ④ 현주거-현주거의 물리적 상황과 자금조달구조.
- ⑤ 주거조절계획-희망주거의 물리적, 경제적 측면.
- ⑥ 이웃환경-주거입지선호, 주변의 자녀양육시설.
- ⑦ 주거선호-주거와 이웃환경에 대한 선호.

2. 조사방법과 분석방법

본조사의 대상은 ① 결혼한 지 4년 이내 ② 자녀가 없거나 1명 ③ 핵가족 ④ 수도권지역 거주 요건을 충족시키되 주부가 취업하고 있는 유형, 가구주의 학력수준이 비교적 낮은 유형이 고루 표집되도록 하였다.

서울의 강남/강북/수도권지역에서 다양하게 구와 동을 선정하여 선정된 동에서 아파트/단독주택/다세대주택/다가구주택 거주가계만을 대상으로 하였다¹⁾. 조사지역을 선정 후 서울대학교 가정대학 소비자·아동학과 학부 및 대학원 재학생에게 선정된 동의 조사를 배분하였다.

조사일시는 1991년 9월15일-1991년 10월 8일. 조

〈표 1〉 조사대상의 일반적특성
빈도(%)

	구 분	남 편	부 인
연령	20-24세	-	13(4.9)
	25-29세	94(35.6)	202(76.9)
	30-34세	155(58.7)	45(17.1)
	35-39세	14(5.3)	3(1.1)
	40세이상	1(.4)	-
	계	264(100)	263(100)
	무응답		1
교육	대졸미만	106(40.2)	140(53.8)
	대졸이상	158(59.8)	120(46.2)
	계	264(100)	260(100)
	무응답		4
직업	전문직	82(31.1)	36(13.8)
	관리직	19(7.2)	-
	사무직	101(38.3)	12(4.6)
	판매·서비스직	41(15.5)	17(6.5)
	생산직	17(6.4)	7(2.7)
	주 부	-	179(68.6)
	기 타	4(1.5)	10(3.8)
	계	264(100)	261(100)
	무응답		3
결혼 지속 년수	-1년이내	64(24.2)	
	-2년이내	75(28.4)	
	-3년이내	67(25.4)	
	그 이상	58(22.0)	
	계	264(100)	
자녀	있다	191(72.3)	
	없다	73(27.7)	
	계	264(100)	
자가 용 보유 여부	있다	109(41.3)	
	없다	155(58.7)	
	계	264(100)	
주택 소유 형태	자가	81(30.7)	
	입차	183(69.3)	
	계	264(100)	
거주 지역	강남	83(31.4)	
	강북	82(31.1)	
	수도권	99(37.5)	
	계	264(100)	

1) 실제 응답대상은 주부였으며, 조사항목에 따라 남편의 도움도 있었다.

〈표 2〉 월평균소득구조(소득원천별)

단위:만원, 빈도(%)

가구주 근로소득	주부 근로소득	재산소득 (이자·배당금)	시대·친정보조	월평균 총소득	
				응답	계산
-60미만 30(11.6)	0 170(65.4)	0 218(82.6)	0 211(79.9)	-70미만 22(8.4)	23(8.9)
60-89 73(28.2)	-20미만 20(7.7)	-15미만 30(11.4)	-15미만 40(15.2)	70-100미만 79(30.3)	77(29.7)
90-119 91(35.1)	20-50미만 28(10.8)	15-50미만 10(3.8)	15이상 13(4.9)	100-140미만 73(28.0)	78(30.1)
120이상 65(25.1)	50-100미만 33(12.7)	50이상 6(2.3)		140-180미만 54(20.7)	45(17.4)
	100이상 9(3.5)			180이상 33(12.6)	36(13.9)
계 259(100)	계 260(100)	계 264(100)	계 264(100)	계 261(100)	259(100)
무응답 5	4			무응답 3	5

사한 설문지 274부 중 조사대상요건에 부적합하거나 부실기재된 자료를 제외하고 총 264부를 최종 분석하였다. 자료의 확인과정에서 부실기재된 항목은 전화접촉이 가능한 경우에는 전화접촉을 통해 혹은 조사요원의 재조사를 통해 최대한 보완하여 자료의 활용도를 높였다.

수집된 자료는 서울대학교 전산원의 SPSSX 통계패키지를 이용하여 빈도와 퍼센트를 구하고 분할표 분석과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의 일반적특성은 〈표 1〉과 같다.

Ⅲ. 결과 및 논의

1. 경제구조

1) 소득

월평균 가구주근로소득은 90 - 120만원 사이에 35%가 분포하였다(〈표 2〉 참조). 60만원 미만도 11.6%나 되며 120만원 이상은 25.1%로 전체적으로 심한 소득격차를 보이는데 가구주의 학력 및 직업에 따른 임금격차를 반영한 것으로 생각된다. 주부근로소득도 심한 격차를 보이는데 대졸이상 전문직 취업 여성과 대졸미만 단순직 부업/부분취업 여성이라는 차이 때문으로 생각된다. 주식배당금이나 이자 등의 재산소득은 82.6%가 없다고 응답했으며, 20.1%가 시대이나 친정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보조받고 있다. 예비조사에서 직접적인 현금보조 외에 쌀,부식 등의 현물보조가 상당수 나타났음에 미루어 보면, 주

거단위는 독립되어 있어도 경제적으로는 그렇지 못한 신혼가계의 생활양식을 짐작할 수 있다.

월평균 총가계소득의 계산값은 127만 7천원, 응답값은 평균 122만 5천원으로 소득원천별 액수를 합하여 계산한 값과 총액을 응답받은 값에 다소 차이가 난다. 총가계소득은 부부의 학력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는데(〈표 3〉 참조), 남편의 학력은 곧 직접적인 소득에 기여하기 때문으로 생각되나 부인의 학력은 고학력 전문직 취업주부의 근로소득을 통한 직접적 효과 외에 배우자학력을 통한 간접적 소득차이 때문으로 생각된다.

가계총소득에 대한 각 소득원천별 기여도²⁾는 65.3%의 가구주가 총소득의 80% 이상을 담당하고 있으며 50%이상을 담당하는 주부는 5%에 지나지 않는다(〈표 4〉 참조). 비교적 기혼여성의 취업이 증가하고는 있으나 아직 그 소득이 가계에 큰 기여를 하지는 못함을 알 수 있다.

2) 지출³⁾

총지출은 응답치와 계산치가 7-8만원 가량 차이를

2) 이하의 모든 분석에서는 계산한 소득액을 사용한다.

3) 월평균 가구주근로소득 / 월평균 총소득계산치 × 100 과 같은 방식을 계산

4) 가구집기·가사용품비, 보건의료비 등과 같이 월평균단위로 지출되지 않는 비목이 많아 지출구조 파악을 위해서는 최소한 6개월-1년 단위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표 3〉 학력에 따른 월평균 가계총소득의 일원분산분석

변 수		남 편 학 력			부 인 학 력		
		고졸이하 (54)	전문대졸 대학중퇴 (51)	대졸이상 (155)	고졸이하 (91)	전문대졸 대학중퇴 (48)	대졸이상 (117)
월평균 가계총소득 (만원)	평균	103.26	120.18	134.72	110.35	123.22	138.23
	F값	7.60***			7.25***		

*** p<.001

〈표 4〉 소득원천별 기여도

빈 도 (%)

	가구주근로소득	주부 근로소득	재산소득	부모 보조	기 타
0	0(.0)	177(68.1)	218(82.6)	211(80.2)	258(97.7)
- 10% 미만	1(.4)	6(2.3)	30(11.4)	36(13.7)	7(2.7)
10% 이상 -	3(1.1)	30(11.5)	9(3.4)	12(4.6)	8(3.0)
30% 이상 -	19(7.3)	34(13.1)	4(1.5)	2(.8)	0(.0)
50% 이상 -	67(25.6)	12(4.6)	3(1.1)	2(.8)	0(.0)
80% 이상 -	49(18.7)	1(.4)	0(.0)	0(.0)	0(.0)
100%	123(46.6)	0(.0)	0(.0)	0(.0)	0(.0)
계	262(100)	260(100)	264(100)	263(100)	264(100)
무응답	2	4		1	

보였는데, 계산에 의하면 평균 99만 4천원이며 29.5%가 70만원 - 99만원 사이에 분포한다(〈표 5〉 참조). 매달 저축총액은 평균 37만원 가량으로 모든 지출비목 중 가장 크다. 44.3%가 한달에 평균 30-69만원을 저축하고 있다. 저축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조사하지는 않았으나 주택마련, 자녀교육 등에 대비하는 것으로 생각되며 높은 저축성향은 신혼기계의 건전한 소비생활과 장기경제계획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33.7% 정도만이 매달 부채상환을 위해 지출하고 있다. 역시 큰 비중으로 지출되는 식료품비는 차이가 비교적 크며 그 외 교육교양오락비, 교통통신비, 피복 및 신발비도 분포에서 차이가 큰데 가족단위의 외식, 여가생활, 자가용보유, 직업과 사회활동 등의 생활양식차이에서 비롯된다고 생각된다.

총지출을 기준으로 비목별 비중을 계산한 결과(〈표 6〉 참조) 신혼가계의 지출에서 가장 큰 비중은

저축에 두어지고 있으며(78.3%가 20% 이상을 저축) 그 다음이 식료품비(40.9%가 20% 이상을 식료품비에 지출)이다. 그 외에 자가용보유에 따르는 교통비(22.9%가 10% 이상을 지출), 부채상환(22.7%가 10% 이상을 지출), 각종 경조사비(18.6%가 10% 이상을 지출)의 지출이 비교적 중요한 비목으로 나타났다.

배경변수에 따라 주요 지출비목의 비중을 일원분산분석한 결과(〈표 7〉 참조) 식료품비비중은 가계소득이 높은 경우, 주부학력이 낮은 경우에 작게 나타나 앵겔의 제1법칙을 입증하였다. 교통통신비비중은 가계소득, 부부학력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데 학력이 높은 집단에서는 소득이 그리 높지 않아도 자가용이 많이 많아서 나타난 차이로 추론된다. 또한 저축비중은 가계소득에 따라서는 차이가 없고 부부학력에 따라 차이가 난다. 즉 소득수준과는 상관없이 총소득의 35% 정도를 저축한다고 볼 수 있으나, 비교적 소득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졸이상의 집단에서

〈표 5〉 월평균 지출구조

		단위: 백만원(%)																					
시도 분류	파격 및 신분	평균 신분	평균 수도	가구 임기 · 가사 용품	보 선 의 보 비	교 육 · 교 양 · 교 양 · 교 양	교 통 · 보 신	주 거 비 (월 세 · 월 수 임)	조 식 · 각 종 · 보 육	저 축	부 채 상 환	경 조 사 비	월 경 · 월 경 · 월 경										
													총 합	계 산									
9이하	48(18.4)	0	13(4.9)	44(16.7)	0	171(6.4)	0	28(10.6)	4(이하	13(4.9)	4(이하	13(4.9)	0	175(65.3)	0	58(22.0)	-3(이하	15(7.4)	13(5.0)				
10-19	25(9.3)	4(이하	122(46.4)	133(50.4)	2(이하	165(62.5)	2(이하	102(38.8)	3-6	99(42.7)	9(이하	28(11.0)	4(이하	140(53.0)	4(이하	140(53.0)	40-99(이하	74(28.7)	64(24.8)				
20-30	78(29.9)	5-9	87(33.1)	75(28.4)	3-6	75(27.7)	3-6	84(31.8)	10-19	87(33.1)	5-14	3(12.9)	7-19	43(16.3)	10-29	45(17.0)	5-9	51(19.3)	70-99(이하	67(26.0)	78(29.5)		
40이상	9(3.4)	15-19	33(12.5)	12(4.5)	7-50	9(3.4)	7-14	38(14.4)	20-49	41(15.5)	15-50	7(2.7)	20-49	6(2.6)	30-60	117(44.3)	30이상	15(5.7)	100-199(이하	71(28.8)	80(31.0)		
무응답	3	무응답	8(3.0)	무응답	무응답	15-29	9(3.4)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계	25(10.0)	계	263(100)	계	264(100)	계	264(100)	계	223(100)	계	264(100)	계	264(100)	계	264(100)	계	264(100)	계	264(100)	계	264(100)	계	264(100)

오히려 저축성향이 낮은 것이다. 이는 학력이 높은 집단에서 여가생활, 교통통신 등의 비목에 지출이 높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3) 자산상태

현금성자산의 관리는 묶돈을 마련하기 위한 각종 적금형태가 으뜸이었다(〈표 8〉 참조). 특히 세금우대, 대출용이, 특별금리우대, 소득세 공제 등 각종 혜택이 큰 재형저축이 가장 많으며(46.0%) 주택청약을 위한 청약저축과 부금(28.1%)에 많이 가입하고 있다. 그 외에 비공식적 저축수단인 계는 널리 이용되고 있지 못하며 각종 보험이 더 보편적으로 보인다. 일정기간 동안 묶돈을 예치시켜 두는 정기예금 형태는 민영주택청약을 위한 청약예금이 가장 많으며(16.1%) 일반정기예금(9.6%)이 그 다음이나, 전체적으로 묶돈이 형성되어 있기 어려운 시기이므로 정기예금류는 신혼가게에게는 인기저축품목이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 그 외에 입출금이 자유로운 저축성예금은 66.7%가 이용하고 있으나 1백만원 이상의 저축잔고를 가진 비율은 25.4%에 그치고 있어 대다수가 생활비의 일시적 보관창구로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상 적금, 정기예금, 저축성예금 잔고를 모두 합하여 총저축액을 계산한 결과 대략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현금은 평균 1천만원 정도로, 인플레이션을 감안하여도 현재 주거수준을 어느정도 상승시킬 수 있는 자원인데 49.2%가 1천만원 이상의 총저축액을 지니고 있다(〈표 9〉 참조). 현주거가치⁹⁾는 46.4%가 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정도이며 6천만원 이상도 19.8%로 나타났다.

이러한 자산¹⁰⁾은 저축액의 경우 소득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나, 부부의 학력에 따른 차이는 유의하지 않다(〈표 10〉 참조). 반면 현주거가치는 부

- 5) 임차의 경우 전·월세보증금, 자가의 경우 현재시장가격의 응답을 얻어 계산하였다.
- 6) 현재의 부채액과 기타 자산을 고려해야만 하나, 예비조사에서 부채상태와 자산상태에 대한 세밀한 조사가 매우 어려웠고 그 결과로 신빙성이 떨어져 본 조사에서는 제외하였다.

<표 6> 비목별 지출비중

빈도(%)

	식료품비	피복·신발	광열·수도	가 구	의 료	교 양	교 통	공과금	경조사비	부채상환	저 축
0	2(.8)	13(5.0)	6(2.3)	44(16.8)	17(6.5)	28(10.7)	12(4.6)	32(12.2)	175(66.3)	175(66.3)	13(5.0)
- 10% 미만	36(13.7)	208(79.4)	235(89.7)	213(81.3)	241(91.6)	213(81.3)	190(72.5)	199(76.0)	36(13.3)	29(11.0)	14(5.3)
10% 이상	116(43.9)	37(14.1)	19(7.3)	5(1.9)	2(.8)	17(6.5)	53(20.2)	26(9.9)	28(10.6)	45(17.0)	30(11.5)
20% 이상	108(40.9)	4(1.5)	2(.8)	-	3(1.1)	4(1.5)	7(2.7)	5(1.9)	21(8.0)	15(5.7)	144(55.0)
계	262(100)	262(100)	262(100)	262(100)	263(100)	262(100)	262(100)	262(100)	264(100)	264(100)	262(100)
무응답	2	2	2	2	1	2	2	2	0	0	2

* : 50% 이상

<표 7> 배경변수⁷⁾에 따른 주요지출비목비중의 일원분산분석

		월평균 가계총소득			남 편 학 력			부 인 학 력			
변 수		집단	100만원 미만 (100)	-160만원 미만 (104)	160만원 이상 (54)	고졸이하 (54)	전문대졸 대학중퇴 (51)	대졸이상 (155)	고졸이하 (91)	전문대졸 대학중퇴 (48)	대졸이상 (117)
총 지출에 대한 비중 (%)	식료품비	평균	22.22	18.67	18.68	21.98	18.76	19.09	21.79	17.22	19.26
		F값	6.30**			1.87			3.58*		
	교통통신비	평균	5.64	8.10	6.07	4.23	6.72	7.61	4.94	5.72	8.55
		F값	4.07*			5.62**			9.15***		
	저축	평균	34.39	36.72	35.47	33.43	43.36	33.70	37.03	41.30	31.92
		F값	.40			5.81**			4.99**		

* p<.05 ** p<.01 *** p<.001

<표 8> 현금성자산관리

빈도(%)

적 금 류	정 기 예 금 류	기 타 저 축 총 액
없 음	없 음	0
재형저축	176(67.5)	88(33.3)
청약저축	39(15.0)	50만원이하 66(25.0)
청약저축·부금	13(5.0)	100 이하 43(16.3)
일반적금	21(8.0)	500 이하 52(19.7)
계	3(1.1)	1000 이하 10(3.8)
보 험	8(3.4)	그 이상 5(1.9)
기 타	4(1.5)	
계	261(100)	계 264(100)
	무응답 3	

<표 9> 총자산 단위:만원, 빈도(%)

총 저 축 액		현 주 지 가 치	
- 100 미만	28(11.5)	- 1000 미만	26(10.3)
- 500 미만	32(13.2)	- 3000 미만	117(46.4)
- 1000 미만	68(28.0)	- 6000 미만	59(23.4)
- 2000 미만	73(30.0)	- 1억 미만	25(9.9)
- 3000 미만	27(11.1)	- 1억 이상	25(9.9)
3000 이상	15(6.1)		
계	243(100)	계	252(100)
무응답	21	무응답	12

7) 신희기가지의 특성을 구성하는 주요변수로, 본 연구에서는 월평균가계총소득, 남편과 부인의 학력을 선정하였다. 소득과 학력이 상관관계가 높기는 하나 부부의 학력은 그들의 가족적, 사회적 배경을 간접적으로 대변해 주기 때문에, 분할표분석과 일원분산분석에서 각각 다른 의미를 지닌다.

〈표 10〉 배경변수에 따른 총자산의 일원분산분석

		월평균 가계총소득			남편 학력			부인 학력		
변수	집단	100만원 미만 (100)	-160만원 미만 (104)	160만원 이상 (54)	고졸이하 (54)	전문대졸 대학중퇴 (51)	대졸이상 (155)	고졸이하 (91)	전문대졸 대학중퇴 (48)	대졸이상 (117)
총저축액 (만원)	평균	501.64	656.40	808.45	554.38	713.02	640.55	458.39	679.69	665.95
	F값	4.63**			1.17			2.61		
현주거가치 (만원)	평균	3299.49	3830.20	5624.04	2090.45	2605.75	5122.38	2325.51	3215.22	5638.76
	F값	4.79**			12.88***			16.18***		

* p<.05 ** p<.01 *** p<.001

부의 학력에 따른 차이도 유의하다. 결혼 후 자신들의 소득으로 자산을 축적한 저축액은 소득이 높을수록 많으나, 현주거는 대개 부모로부터 상당부분을 보조받기 때문에 부부의 학력도 유의한 변수로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결국 학력이 높은 집단은 그 부모들이 마련해 준 부동산과 자신들의 소득에서 저축한 동산 두가지 측면 모두에서 학력이 낮은 집단보다 우월한 경제력을 확보하고 있다.

〈표 11〉 총주거 자금

단위: 만원, 빈도(%)

신혼주거		현주거	
- 1000이하	78(30.2)	- 1000이하	37(14.3)
- 3000이하	130(50.4)	- 3000이하	142(55.0)
- 7000이하	37(14.3)	- 7000이하	64(24.8)
그 이상	13(5.0)	그 이상	15(5.8)
계	258(100)	계	258(100)
무응답	6	무응답	26

4) 신혼주거자금

신혼주거를 마련한 혹은 신혼주거 특성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자원인 주거자금이, 어떤 방법으로 얼마나 조달되고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중요한 자금원천별로 분석해 보면 신혼주거 자금총액은 2천 3백만원-3천만원 정도가 가장 보편적이다(〈표 11〉 참조). 3천만원 이상인 경우는 17.5%인데, 물론 결혼 시기상의 차이에서 나타나는 집값상승을 감안한다 해도 이들은 자가소유가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신혼주거자금총액은 현재가계소득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으나 부부학력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표 12〉 참조). 따라서 신혼주거의 자금은 현재 신혼기가계의 소득수준과는 상관없이 그 부모세대의 경제력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신혼주거의 자금원천을 살펴보면(〈표 13〉 참조), 직장용자는 10%정도가 이용했으나 그 액수는 1천만원을 넘지 못하고 있으며 은행용자는 20%정도가 이용했으나 대체로 1천만원 이하이다. 본인들의 저축 이용은 40.2%로 나타났는데 그 액수도 대개 1천만원

이하이다. 이에 비해 75%정도가 시댁·친정의 보조를 이용하였으며 그 액수도 1천만원 이상이 전체의 45.2%로 나타났다. 자금수단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하고 순수한 총액평균을 보면 직장용자 824만원, 저축 795만원, 은행용자 951만원인 반면 시댁·친정보조는 무려 2,185만원에 이르고 있다. 게다가 그 편차는 매우 커서 부모는 단지 얼마라도 자녀가 결혼할 때 주거마련에 몫돈을 보조해 주는 것이 경제수준과 상관없이 매우 보편적인 관습으로 생각된다. 그외에 결혼비용을 절약하여 주거마련에 보탬비율은 9.2%에 그치고 있으며, 실제로 절약한 경우에도 그 액수가 평균 385만원에 그치고 있어 결혼의 형식과 절차에 과다한 경제력이 소모되고 있음을 짐작하게 된다.

자금원천의 절대액 분석에서 예상되는 바이지만, 신혼주거 마련에 각 자금원천의 기여도는 물가상승 및 신혼주거 총액규모에는 상관없이 신혼주거마련의 자금조달양식을 보여주는 지표이다. 절대액수 분석에서는 그리 중요하지 않았던 저축으로 신혼주거자

〈표 12〉 배경변수에 따른 총주거자금의 일원분산분석

변 수	집단	월평균 가계총소득			남 편 학 력			부 인 학 력		
		100만원 미만 (100)	-160만원 미만 (104)	160만원 이상 (54)	고졸이하 (54)	전문대졸 대학중퇴 (51)	대졸이상 (155)	고졸이하 (91)	전문대졸 대학중퇴 (48)	대졸이상 (117)
신혼주거 총자금 (만원)	평균	2147.68	2213.11	3187.27	1304.82	1753.40	3021.04	1428.90	1916.09	3350.00
	F값	2.84			9.79***			14.20***		
현주거 총자금 (만원)	평균	2696.50	2750.00	4114.82	1818.15	2219.40	3729.70	1946.70	2278.04	4146.67
	F값	4.86**			11.43***			17.92***		

** p<.01 *** p<.001

〈표 13〉 신혼주거 자금구조

단위:만원,빈 도(%)

	은행융자	직장융자	저 축	시택친경보조	사 채	결혼비용절약	기 타
0	206(79.5)	234(90.3)	152(58.9)	58(22.4)	251(96.9)	236(91.1)	244(94.2)
500이하	24(9.3)	12(4.6)	53(20.5)	37(14.3)	8(3.1)	18(6.9)	11(4.2)
-1000이하	20(7.7)	13(5.0)	37(14.3)	47(18.1)		5(1.9)	4(1.5)
1001이상	9(3.5)		16(6.2)	118(45.2)			
계	259(100)	259(100)	258(100)	259(100)	259(100)	259(100)	259(100)
무응답	5	5	6	5	5	5	5

금의 60% 이상을 조달한 비율이 19.0%나 되는 것은, 비교적 자금규모가 작은 신혼주거를 얻는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저축을 많이 이용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표 14〉 참조). 또한 신혼주거자금을 전적으로 부모에 의존하는 경우가 전체의 41.3%나 되며, 부모로부터 신혼주거자금을 보조받은 사람들 중에서는 53.2%가 전적으로 부모에게 신혼주거 자금을 의존하였다. 결국 시택이나 친정에서 신혼주거를 마련해 주신다는 주변관습이 경험적으로 입증된다. 이러한 부모의 신혼주거자금조달정도는 부부학력이 높은 집단에서 그 부모의 신혼주거자금 부담률이 유의하게 높다(〈표 15〉 참조).

이상과 같은 결과는 한국의 젊은이들이 25-35세 무렵 충분히 성인자격을 갖춘 연령에 결혼하기는 하나, 실질적으로는 부모로부터 독립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학력이 높은 집단일수록 그 의존정도는 더 강함을 입증하는 것이다.

5) 현주거자금⁸⁾

절대액수로 볼 때 현주거총자금은 평균 2,968만원이나 그 편차가 매우 크다(〈표 11〉 참조). 1천만원-3천만원 정도에 55.0%가 집중분포하며, 1천만원 이하는 14.3%에 그친 반면 3천만원 이상은 30.6%로 나타났다. 결국 신혼주거에서 이사한 가계는 어떤 형태로든 주거상승 이동을 한 비율이 높다고 추론할 수 있다.

현주거총자금은 가계소득, 부부학력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데(〈표 12〉 참조), 신혼주거에서는

8) 현주거의 자금액수는 현주거에 거주한 이후의 보증금 인상분이나 집값 상승분은 고려치 않고, 현주거에 거주하게 될 당시의 자금액수로 분석한 것임. 따라서 결혼 후 신혼주거에서 주거이동이 있었을 경우만 현주거 자금총액이 신혼주거 자금총액과 달라짐. 표로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결혼 후 처음 생활한 신혼주거에서 이동한 비율은 51.9%였다.

〈표 14〉 주거 자금원천별 기여도

빈도(%)

신혼주거	은행융자	직장융자	저축	부모보조	사채	결혼비용절약	
0	206(79.5)	234(90.3)	152(58.9)	58(22.4)	251(96.9)	236(91.1)	
- 20%미만	14(5.4)	12(4.6)	23(8.9)	10(3.9)	4(1.5)	11(4.2)	
20 - 40%미만	20(7.7)	6(2.3)	16(6.2)	21(8.1)	2(.8)	9(3.5)	
40 - 60%미만	10(3.9)	7(2.7)	18(6.8)	25(9.7)	2(.8)	1(.4)	
60 - 80%미만	5(1.9)	-	15(5.8)	16(6.2)	-	-	
80 - 100%미만	-	-	1(0.4)	16(6.2)	-	-	
100%	4(1.5)	-	33(12.8)	107(41.3)	-	2(.8)	
계	259(100)	259(100)	258(100)	259(100)	259(100)	259(100)	
무응답	5	5	6	5	5	5	
현주거	은행융자	직장융자	저축	부모보조	사채	결혼비용절약	이전주거
0	205(78.8)	223(85.8)	140(54.1)	100(38.6)	252(96.9)	246(94.6)	138(53.1)
- 15% 미만	7(2.7)	14(5.4)	29(11.2)	10(3.9)	3(1.2)	6(2.3)	5(1.9)
15% 이상 -	22(8.5)	12(4.6)	28(10.8)	24(9.3)	4(1.5)	4(1.5)	12(4.6)
30% 이상 -	17(6.5)	6(2.3)	25(9.7)	27(10.4)	-	3(1.2)	26(10.0)
50% 이상 -	6(2.3)	4(1.5)	23(8.9)	22(8.5)	-	-	29(11.2)
70% 이상 -	3(1.2)	1(.4)	14(5.4)	76(29.3)	-	1(.4)	50(19.2)
계	260(100)	260(100)	259(100)	259(100)	259(100)	260(100)	260(100)
무응답	4	4	4	5	5	5	4

〈표 15〉 배경변수에 따른 주거자금의 부모비중의 일원분산분석

		월평균 가계총소득			남편 학력			부인 학력		
변수	집단	100만원 미만 (100)	-160만원 미만 (104)	160만원 이상 (54)	고졸이하 (54)	전문대졸 대학중퇴 (51)	대졸이상 (155)	고졸이하 (91)	전문대졸 대학중퇴 (48)	대졸이상 (117)
주거자금의 부모보조비율(%)	신혼주거	평균 63.23	59.67	54.46	50.35	52.33	71.23	42.07	51.16	69.23
	F값	.80			8.10***			10.90***		
현주거	평균	40.03	41.75	34.09	20.77	33.29	48.38	27.06	34.57	51.38
	F값	.64			10.64***			10.24***		

*** p<.001

유의하지 않았던 가계소득이 유의하였다. 부모가 주로 부담한 신혼주거에서 출발했으나 가계소득이 더해져 현주거의 자금규모에 차이가 난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추론은 현주거의 자금원천별 비중으로 뒷받침되는데(〈표 14〉 참조), 신혼주거와는 달리 각종 융자와 저축의 비중이 다소 높아진 반면, 시댁·친정 부모 보조는 비교적 낮아지고 이전에 살던 집의 보

증금이나 처분한 돈이 중요한 자금원으로 등장하였다. 한편 현주거총자금 중 부모비중은 부부 학력에 따라 차이를 보여(〈표 15〉 참조), 학력이 높은 집단에서 현주거마련에서도 부모의존도가 높다. 따라서 부모로부터 보조를 받거나 저축과 융자 등을 통해 부족한 자금을 보탬으로써 주거수준을 상승시키는 신혼기가계의 내집마련 전략이 단편적으로나마 드러

나고 있다.⁹⁾

6) 희망주거의 자금조달

현재의 주거가 가족생활주기단계에서 자녀양육을 위한 확대기까지 계속 거주할만한 것은 아닌 경우도 많다. 따라서 앞으로의 주거조절계획¹⁰⁾이란 신혼가게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다. 주거조절계획에 대해 84.5%가 중요하다고 응답하고 1.6%만이 중요하지 않다고 하였으며 (<표 16> 참조), 향후 5년 이내에 이사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응답이 80.7%였다. 주거계획이 없는 이유는 경제적 여유가 없기 때문이 39.2%, 지금 상태에 만족하기 때문이 31.4%로 나타났다(<표 17> 참조).

주거조절계획이란 단순히 '이런 집으로 이사가고 싶다'는 욕구에 그쳐서는 안되며, 비교적 구체적인 자금마련계획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84.0%가 지금 사는 집에서, 85.4%가 저축한 돈으로, 57.7%가 용자를 받아서 자금을 마련하겠다고 응답하였으며 계를 이용하겠다는 응답도 11.3%로 나타나 젊은 세대에서도 비공식적 저축을 어느 정도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18> 참조). 놀랍게도 시댁의 보조를 받겠다는 응답이 20.7%, 친정보조를 받겠다는 응답이 6.6%나 나타나, 한국사회의 부모-자녀관계를 보여주

<표 16> 주거조절계획의 중요성 빈도(%)

중요하지 않음	보통	중요함	계	무응답
4(1.6)	36(13.9)	219(84.5)	259(100)	5

9) 보다 상세한 분석을 위해서는 신혼주거에서 현주거가 변동된 경우를 따로 분리하여 그 자금조달방법을 비교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10) 본 연구에서 주거조절계획이란 어떤 형태로든 미래에 주거를 이동하고자 하는 계획에 한정하였다. 개조도 넓게 보아 주거조절계획에 포함되긴 하나 임차가 많은 신혼주거는 거주인이 원하는 바대로 개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우며 특히 내부시설 개조가 아닌 공간확대 등은 주거이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이다. 구체적으로는 앞으로 5년 이내에 이사할 계획이 있는가를 연구문제로 하였다.

는 또 하나의 단면으로 생각된다.

2. 주거실태 및 선호

1) 신혼주거상황

전체적으로 신혼주거¹¹⁾의 특징을 보면(<표 19> 참조), 먼저 주거유형에서 40.7%가 아파트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하였으며 최근에 대대적으로 공급된 다가구주택이 26.6%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주거내부시설이 편리하게 갖추어져 있기를 선호하며, 신혼살림은 최대한 깨끗하고 새로운 환경에서 시작하기를 원하는 젊은 세대의 의식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소유형태는 독채전세 37.5%, 일부전세 36.0%로, 몫돈이 마련되는 한도 내에서는 최대한 몫돈을 이용하여 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신혼가계용 임대주택 공급에서 외국에서처럼 일률적으로 월세로 처리할 것만이 아니라 우리사회의 독특한 양식인 전세형태도 고려해 볼만하다. 신혼살림부터 자기집을 소유하면서 출발하는 비율은 21.2%로 앞의 주거자금 마련분석에서 미루어 짐작해 볼 때, 이들의 신혼주거자금은 부모로부터 조달된 부분을 클 것으로 생각된다.

신혼주거의 사용면적은 평균 14.8평이며 10평-19평의 신혼주거가 62.5%로 대부분이다. 한편 9평이하의 협소한 신혼주거는 18.6%, 20평 이상의 비교적 넓은 신혼주거는 19.0%로 나타났다. 사용구조에 있어서는 방이 1개인 비율이 34.1%, 2개인 비율이 52.3%이며, 방이 1-2개이면서 거실이 없는 구조가 57.7%로 방이 3개 이상인 경우는 거실이 있는 구조가 더 많이 나타나니, 방이 1-2개 즉 주거면적이 비교적 좁은 경우에는 거실이 없는 구조가 많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신혼가계의 선호를 반영한 결과라고는 생각되지 않으며 현재 공급되는 주거가 대부분, 규모는 작더라도 방을 많이 만드는 것을 우선요건으로 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11) 결혼 후 바로 분가를 하지 않은 경우는 분가해 나간 집을 신혼주거로 처리하였음. 표로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결혼 후 바로 분가한 경우가 87.1%였음.

〈표 17〉 5년 이내 이사계획

빈도(%)

계획 유무		계획 시기		계획이 없는 이유	
유무	213(80.7)	무계획	51(19.5)	경제적 여유가 없음.	20(39.2)
	51(19.3)	12개월이하	36(13.7)	지금 현재의 주거로 만족.	16(31.4)
		13-36 이하	99(37.7)	부모님이 마련.	1(2.0)
		37개월이상	76(29.0)	앞으로 부모님과 동거.	9(17.6)
				기 타.	5(9.8)
계	264(100)	계	262(100)	계	51(100)
		무응답	2	무응답*	213

* : 무응답에는 계획없는 경우 포함

〈표 18〉 희망주거 자금구조 빈도(%)

	예	아니오	계	무응답*
지금사는 집에서	179(84.0)	34(16.0)	213(100)	51
시 택	44(20.7)	169(79.3)	213(100)	51
친 정	14(6.6)	199(93.4)	213(100)	51
본인저축	182(85.4)	31(14.6)	213(100)	51
계	24(11.3)	189(88.7)	213(100)	51
용 자	123(57.7)	90(42.3)	213(100)	51
사 채	5(2.3)	208(97.7)	213(100)	51
기 타	5(2.3)	208(97.7)	213(100)	51

* : 무응답에는 계획이 없는 경우 포함

신혼주거의 유형과 소유형태는 가계소득과는 무관하나 부부학력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표 20〉 참조). 이는 신혼주거의 마련이 그 부모세대의 경제력과 생활양식에 따라 주로 좌우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즉 학력이 높은 집단에서 아파트의 비율이 높은 반면 낮은 집단에서는 다가구주택이 두드러진다. 또 자가와 독채전세가 학력이 높은 집단에서 많이 나타나는 반면 일부전세와 월세의 비율은 학력이 낮은 집단에서 높다. 이러한 차이는 신혼주거의 규모에서도 나타나(〈표 21〉 참조), 신혼주거규모는 부부학력이 높은 집단에서 더 넓게 나타난 반

〈표 19〉 주거상태

빈도(%)

주거 유형		소유 형태		사용 면적		사용 구조					
신혼주거	현주거	신혼주거	현주거	신혼주거	현주거	신혼주거	현주거				
단독주택	63(24.0)	46(17.6)	자 가	56(21.2)	79(30.0)	9평이하	49(18.6)	28(10.6)	1K	46(17.8)	27(10.5)
아 파트	107(40.7)	125(47.7)	독채전세	99(37.5)	92(35.0)	10-14평	95(36.0)	83(31.6)	1DK	26(10.1)	22(8.5)
다세대	23(8.7)	27(10.3)	일부전세	95(36.0)	79(30.0)	15-19평	70(26.5)	82(31.2)	1LDK	16(6.2)	9(3.5)
다가구	70(26.6)	64(24.2)	독채보증	1(.4)	2(.8)	20-24평	32(12.1)	36(13.7)	2DK	77(29.8)	117(45.4)
			부월세			25-29평	11(4.2)	25(9.5)	2LDK	58(22.5)	40(15.5)
			일부보증	10(3.8)	9(3.4)	30-34평	6(2.3)	7(2.7)	3DK	11(4.3)	23(8.9)
			부월세			35평이상	1(.4)	2(.8)	3LDK	21(8.1)	19(7.4)
			기 타	3(1.1)	2(.8)				기타	3(1.2)	1(.4)
계	263(100)	262(100)	계	264(100)	263(100)	계	264(100)	263(100)	계	258(100)	258(100.0)
무응답	1	2	무응답		1	무응답		1	무응답	1	6

〈표 20〉 배경변수에 따른 주거유형과 소유형태의 분할표분석 빈도(%)

변수	집단	월평균 가계총소득			남편학력			부인학력		
		100만원 미만	100 - 160만원 미만	160만원 이상	고졸 이하	전문대졸·대학중퇴	대졸 이상	고졸 이하	전문대졸·대학중퇴	대졸 이상
신혼주거 유형	단독주택	28 (28.0)	23 (22.1)	12 (22.2)	14 (25.9)	23 (45.1)	26 (16.9)	27 (29.7)	12 (25.5)	23 (19.7)
	아파트	34 (34.0)	46 (44.2)	24 (44.4)	10 (18.5)	12 (23.5)	83 (53.9)	20 (22.0)	18 (38.3)	65 (55.6)
	다세대주택	8 (8.0)	8 (7.7)	7 (13.0)	3 (5.6)	4 (7.8)	16 (10.4)	8 (8.8)	6 (12.8)	9 (7.7)
	다가구주택	30 (30.0)	27 (26.0)	11 (20.4)	27 (50.0)	12 (23.5)	29 (18.8)	36 (39.6)	11 (23.4)	20 (17.1)
	계	100 (100.0)	104 (100.0)	54 (100.0)	54 (100.0)	51 (100.0)	154 (100.0)	91 (100.0)	47 (100.0)	117 (100.0)
	X ²	4.98			45.59***			27.48***		
신혼주거 소유형태	자 가	21 (21.0)	20 (19.2)	15 (27.3)	5 (9.3)	11 (21.6)	40 (25.8)	11 (12.1)	14 (29.2)	19 (24.8)
	독채전세	33 (33.0)	48 (46.2)	17 (30.0)	10 (18.5)	15 (29.4)	74 (47.7)	23 (25.3)	16 (33.3)	60 (51.3)
	일부전세	40 (40.0)	34 (32.7)	20 (36.4)	32 (59.3)	22 (43.1)	40 (25.8)	47 (51.6)	17 (35.4)	28 (23.9)
	월 세	6 (6.0)	2 (1.9)	5 (5.5)	7 (13.0)	3 (5.0)	1 (0.6)	10 (11.0)	1 (2.1)	·
	계	100 (100.0)	104 (100.0)	55 (100.0)	54 (100.0)	51 (100.0)	155 (100.0)	91 (100.0)	48 (100.0)	117 (100.0)
	X ²	7.31			43.35***			41.13***		
현주거 유형	단독주택	23 (23.0)	16 (15.5)	7 (12.7)	9 (17.0)	16 (31.4)	21 (13.5)	17 (18.7)	11 (22.9)	17 (14.5)
	아파트	39 (39.0)	55 (53.4)	28 (50.9)	14 (26.4)	13 (25.5)	96 (61.9)	26 (28.6)	19 (39.6)	76 (65.0)
	다세대주택	10 (10.0)	9 (8.7)	8 (14.5)	2 (3.8)	8 (15.7)	17 (11.0)	8 (8.8)	9 (18.8)	10 (8.5)
	다가구주택	28 (28.0)	23 (22.3)	12 (21.8)	28 (52.8)	14 (27.5)	21 (13.5)	40 (44.0)	9 (18.8)	14 (12.0)
	계	100 (100.0)	103 (100.0)	55 (100.0)	53 (100.0)	51 (100.0)	155 (100.0)	91 (100.0)	48 (100.0)	117 (100.0)
	X ²	7.08			52.81***			42.42***		
현주거 소유형태	자 가	28 (28.0)	31 (29.8)	20 (36.4)	8 (14.8)	14 (27.5)	57 (36.8)	16 (17.6)	16 (33.3)	45 (38.5)
	독채전세	34 (34.0)	43 (41.3)	13 (23.6)	15 (27.8)	11 (21.6)	65 (41.9)	27 (29.7)	14 (29.2)	50 (42.7)
	일부전세	34 (34.0)	27 (26.0)	17 (30.9)	24 (44.4)	22 (43.1)	43 (20.6)	38 (41.8)	17 (35.4)	21 (17.9)
	월 세	4 (4.0)	3 (2.9)	5 (9.1)	7 (13.0)	4 (7.8)	1 (0.5)	10 (11.0)	1 (2.1)	1 (0.9)
	계	100 (100.0)	104 (100.0)	55 (100.0)	54 (100.0)	51 (100.0)	155 (100.0)	91 (100.0)	48 (100.0)	117 (100.0)
	X ²	8.36			37.91***			32.26***		

* p<.5 ** p<.01 *** p<.001

〈표 21〉 배경변수에 따른 신혼주거와 현주거규모의 일원분산분석 빈도(%)

변수	집단	월평균 가계총소득			남편 학력			부인 학력		
		100만원 미만 (100)	100~160만원 미만 (104)	160만원 이상 (54)	고졸이하 (54)	전문대졸 대학중퇴 (51)	대졸이상 (155)	고졸이하 (91)	전문대졸 대학중퇴 (48)	대졸이상 (117)
신혼주거 사용면적 (평)	평균	14.05	15.17	15.36	11.07	14.26	16.29	12.00	14.29	17.26
	F값	1.21			17.09***			22.81***		
현주거 사용면적 (평)	평균	15.20	16.81	17.91	12.93	15.24	18.07	13.65	15.13	19.09
	F값	3.59*			15.73***			23.24***		

* p<.05 ** p<.01 *** p<.001

면 현재의 가계소득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주거내·외부 시설에서 공동사용이 많다는 것은 주거수준이 열악한 것인데 특히 신혼주거에서 부엌, 화장실, 욕실 등을 공동사용하는 것은 신혼생활의 특성상 더욱 생활의 질을 저해할 것으로 생각된다. 신혼주거에서 이들 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한 것은 매우 낮은 비율이나, 대문의 공동사용률은 42.4%나 되는 것에서 미루어 볼 때, 비록 임차하여 한 건물내에 거주하더라도 생활상의 프라이버시를 최대한 확보코자 하는 신혼가계의 주거선호를 짐작할 수 있다(〈표 22〉 참조).

〈표 22〉 주거공간 공동사용여부 빈도(%)

	장소	공동 사용		단독 사용	계	무응답	
		빈도	비율(%)				
신혼주거	부엌	4	(1.5)	260	(98.5)	264 (100)	
	화장실	41	(15.5)	223	(84.5)	264 (100)	
	욕실	7	(2.7)	257	(97.3)	264 (100)	
	현관	20	(7.6)	244	(92.4)	264 (100)	
	대문	112	(42.4)	152	(57.6)	264 (100)	
	기타	5	(1.9)	259	(98.1)	264 (100)	
현주거	부엌	6	(2.3)	256	(97.7)	262 (100)	2
	화장실	23	(8.8)	239	(91.2)	262 (100)	2
	욕실	6	(2.3)	256	(97.7)	262 (100)	2
	현관	22	(8.4)	240	(91.6)	262 (100)	2
	대문	100	(38.2)	162	(61.8)	262 (100)	2
	기타	6	(2.3)	256	(97.7)	262 (100)	2

2) 현주거상황¹²⁾

현주거 유형은 아파트 47.7%, 다가구주택 24.2%, 단독주택 17.6%, 다세대주택 10.3%로(〈표 19〉 참조), 신혼주거와 비교해 볼 때 단독주택 거주비율이 크게 감소한 반면 아파트 비율이 매우 높아졌으며 다가구·다세대주택 비율도 다소 높아졌다. 같은 입차라 하더라도 시설이 낙후한 단독주택보다는 최근에 건축된 다가구주택의 선호, 비교적 적은 자금으로도 독립된 소규모 주거단위를 소유할 수 있는 다세대주택의 선호, 주택내·외시설이 모두 편리성 위주로 공급되는 아파트의 선호가 반영된 변화라고 생각한다.

한편 소유형태에 있어서는 자가 30.0%, 독채전세 35.0%, 일부전세 30.0%로 나타났으며 사용면적은 9평 이하가 10.6%, 10-19평이 62.8%, 20평 이상이 26.7%, 사용구조에 있어서는 방 3개 사용이 16.3%로 나타나, 신혼주거의 상태와 비교해 보면 다소나마 주거수준이 상승되었음을 알 수 있다. 현주거의 유형과 소유형태, 사용면적도 역시 부부의 학력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다(〈표 20〉〈표 21〉 참조). 다만 현주거 사용면적이 가계소득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결혼 후 저축 등을 통해 주거규모를 확대시킴으로써 결과로 생각된다.

현주거의 시설 중 공동사용은 부엌 2.3%, 화장실 8.8%, 욕실 2.3%, 현관 8.4%, 대문 38.2%로 나타나

12) 신혼주거에서 이사한 경험이 없는 경우는 신혼주거상황이 곧 현주거상황이나 이사한 경우에는 신혼주거와 차이가 나타남.

비록 같은 건물내에 거주하더라도 독립적인 생활공간을 유지하고자 하는 노력이 신혼주거에서와 마찬가지로 강하게 나타난다(〈표 22〉 참조).

3) 주거조절계획

주거조절계획이라는 것이 현상태에서 더 좋아지고자 하는 것이라면 자가소유 및 주거면적확대계획은 쉽게 수긍할 수 있는 것이다. 전체적으로 이사시기가 1년부터 5년까지 고르게 나타나고 있는 있으나 80.3%가 자가소유를, 60.6%가 25평 이상의 주거를 계획하고 있다(〈표 23〉 참조). 현주거규모와 비교해 보면(〈표 24〉 참조) 6-10평 정도 확대계획이 30.2%, 11평 이상 확대계획도 34.4%로 나타나 주거공간을 넓히고자 하는 강한 요구를 반영한다. 한편 축소나 무변동은 주거유형의 변화나 소유형태의 상승만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로 생각된다.

계획하고 있는 주거유형은 77.9%가 아파트로 응답하여 압도적인 아파트 선호양상을 보이는데, 이렇게 본다면 계획하고 있는 규모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나더라도 대부분 '아파트를 한 채 소유'하기를 강력하게 원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신혼주거, 현주거 분석에서 비교적 많이 나타났던 다세대, 다가구주택 거주는 결혼한 후 5-10년 사이에 최대한 탈피하고자 하는 생활이라고 생각된다.

희망주거의 유형과 규모는 현재소득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표 25〉〈표 26〉 참조), 앞의 신혼주거와 현주거에서와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따라서 앞으로 비교적 넓은 아파트로 옮기고자 하는 계획에는 현재의 가계소득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소유형태의 계획에는 현재의 소득이 유의한 변수로 나타나지 않았다. 결혼 후 짧은 기간, 그리고 그 후의 5년 정도에서 나타나는 소득의 차이는 소유형태의 상승에 차이를 보이기에는 부족하며, 남편의 학력 즉 결혼당시의 여건에 따른 차이가 유의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또한 희망주거의 규모증가량은 배경변수에 따라 차이가 없으므로, 현주거보다 얼마나 더 넓은 주거를 계획하고 있는가는 가계특성과 상관없는 보편적인 양상임을 알 수 있다.

〈표 23〉 희망주거 상황 빈도(%)

희망주거유형	희망주거소유형태	희망주거 규모
단독주택 19(7.2)	자가 167(80.3)	14평 이하 8(3.8)
아파트 166(77.9)	전세 36(17.3)	15-24 이하 76(35.7)
다세대주택 7(3.3)	월세 3(1.4)	25-34 이하 113(53.1)
다가구주택 6(2.8)	기타 2(.8)	35평 이상 16(7.5)
연립주택 9(4.2)		
빌라 6(2.8)		
계 213(100)	계 208(100)	계 213(100)
무응답* 51	무응답* 56	무응답* 51

* 무응답에는 계획없는 경우 포함

〈표 24〉 희망주거규모의 변화량* 빈도(%)

축소	6 (2.8)
무변동	17 (7.1)
1 - 5평 확대	54 (25.5)
- 10평 확대	64 (30.2)
- 15평 확대	46 (21.7)
그 이상 확대	27 (12.7)
계	212 (100)
무응답	52**

* : 희망주거규모 - 현주거규모

** : 무응답에는 계획없는 경우 포함.

4) 현주거 이웃환경

일반적으로 신혼가계는 가족생활주기특성상 주거입지의 선호가 독특하여 교통편리를 최우선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도 41.7%가 현주거지역 선택의 최우선순위로 직장과의 거리를 꼽고 있으며 그 외에 경제적 여건과 교통편리 등이 중요한 고려요건으로 나타났다(〈표 27〉 참조). 특이한 점은 시택·친정과의 거리문제가 11.7%의 1순위 고려요건이며 2,3순위에서도 10.7%, 10.6%를 차지한다는 점이다. 이는 분가는 시키되 아들 부부를 가까운 거리에 두고 싶어하는 시택의 특성과, 특히 취업주부의 경우는 친정이나 시택에 자녀를 맡길 수 있다는 점 등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주요 교통수단은 남편의 경우 35.6%가 자가용으로 나타나 젊은 세대의 자가용 필수인식을 보여준다(〈표 28〉 참조). 그 외 버스, 전철 등의 대중교통이

〈표 25〉 배경변수에 따른 희망주거상황의 분할표분석 빈도(%)

변수	집단	월평균 가계총소득			남편 학력			부인 학력		
		100만원 미만	100 - 160만원 미만	160만원 이상	고졸 이하	전문대졸·대학중퇴	대졸 이상	고졸 이하	전문대졸·대학중퇴	대졸 이상
희망주거 유형	단독주택	7 (9.2)	6 (7.1)	5 (10.2)	5 (11.9)	3 (6.5)	10 (8.1)	7 (8.8)	3 (8.6)	8 (8.5)
	아파트	54 (71.1)	70 (82.4)	40 (81.6)	22 (52.4)	35 (76.1)	108 (87.8)	52 (65.0)	29 (82.9)	82 (87.2)
	다세대주택	5 (6.6)	1 (1.2)	1 (2.0)	3 (7.1)	2 (4.3)	2 (1.6)	6 (7.5)	1 (2.9)	·
	다가구주택	4 (5.3)	2 (2.4)	·	4 (9.5)	1 (2.2)	1 (.8)	4 (5.0)	·	2 (2.1)
	연립주택	3 (3.9)	4 (4.7)	2 (4.1)	5 (11.9)	3 (6.5)	1 (.8)	6 (7.5)	2 (5.7)	1 (1.1)
	빌라	3 (3.9)	2 (2.4)	1 (2.0)	3 (7.1)	2 (4.3)	1 (.8)	5 (6.3)	·	1 (1.1)
	계	76 (100.0)	85 (100.0)	49 (100.0)	42 (100.0)	46 (100.0)	123 (100.0)	80 (100.0)	35 (100.0)	94 (100.0)
	X ²	31.99***			8.59			22.22*		
희망주거 소유형태	자가	55 (72.4)	68 (78.2)	42 (89.4)	23 (56.1)	39 (86.7)	104 (88.1)	54 (70.1)	27 (84.4)	83 (89.2)
	독채전세	12 (15.8)	9 (10.3)	4 (8.5)	9 (22.0)	5 (11.1)	11 (9.3)	12 (15.6)	4 (12.5)	9 (9.7)
	일부전세	6 (7.9)	3 (3.4)	1 (2.1)	6 (14.6)	1 (2.2)	3 (2.5)	8 (10.4)	1 (3.1)	1 (1.1)
	월세	3 (3.9)	·	·	3 (7.3)	·	·	3 (3.9)	·	·
	계	76 (100.0)	87 (100.0)	47 (100.0)	41 (100.0)	45 (100.0)	118 (100.0)	77 (100.0)	32 (100.0)	93 (100.0)
	X ²	13.06			30.92***			16.01*		

* p<.05 *** p<.001

〈표 26〉 배경변수에 따른 희망주거규모의 일원분산분석

변수	집단	월평균 가계총소득			남편 학력			부인 학력		
		100만원 미만 (100)	160만원 미만 (104)	160만원 이상 (54)	고졸이하 (54)	전문대졸 대학중퇴 (51)	대졸이상 (155)	고졸이하 (91)	전문대졸 대학중퇴 (48)	대졸이상 (117)
희망주거 규모 (평)	평균	18.17	22.50	24.15	17.57	22.88	21.94	20.50	20.10	22.46
	F값	5.89**			3.46*			1.05		
희망주거 규모증가 (평)	평균	2.98	5.69	6.24	4.65	7.65	3.88	6.85	4.98	3.37
	F값	1.61			1.66			1.90		

* p<.05 ** p<.01

〈표 27〉 동네선택이유 빈도(%)

	1 순위	2 순위	3 순위
직장과의 거리	110(41.7)	38(15.6)	26(11.5)
경제적 여건	77(29.2)	86(35.4)	23(10.1)
주거환경 편의시설	18(6.8)	32(13.2)	41(18.1)
교통의 편리성	15(5.7)	51(21.0)	71(31.3)
시댁, 친정과의 거리	31(11.7)	26(10.7)	24(10.6)
소음공해, 대기오염	3(1.1)	8(3.3)	25(11.0)
기타요인	10(3.8)	2(.8)	17(7.5)
계	264(100)	243(100)	227(100)
무응답	.	21	37

〈표 29〉 탁아시설 이용실태 빈도(%)

이용 실태		이용도	
있음	98(51.6)	이용안함	89(89.9)
없음	92(48.4)	이용함	10(10.1)
계	190(100)	계	99(100)
무응답*	74	무응답**	165

* : 자녀없는 사람 포함

** : 주변에 탁아시설이 없거나, 자녀없는 경우 포함

〈표 28〉 주요교통수단

빈도(%)

	자가용	버스	전철	택시	전철	도보	기타	계	무응답
남편	94(35.6)	49(18.6)	36(13.6)	4(1.9)	45(17.0)	16(6.1)	20(7.6)	264(100)	
부인	14(5.4)	91(34.9)	41(15.7)	15(5.7)	82(31.4)	14(5.4)	4(1.5)	261(100)	3

〈표 30〉 탁아시설 불만사항

빈도(%)

불만사항	있음	없음	계	무응답*
불만없다.	3(23.1)	10(76.9)	13(100)	251
집에서 멀다.	3(23.1)	10(76.9)	13(100)	251
보모가 믿음직 못함	1(7.7)	12(92.3)	13(100)	251
공간 좁고 시설불량.	5(38.5)	8(61.5)	13(100)	251
비용이 비싸다.	8(61.5)	5(38.5)	13(100)	251
기타	1(7.7)	12(92.3)	13(100)	251

* : 탁아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포함

용은 49.2% 정도로 나타났다. 한편 부인은 주로 버스, 전철 등의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다.

또한 자녀관련사항으로서 탁아시설¹³⁾이 집 근처에 있는가는 51.6%가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그 이용률은 매우 저조하여 10.1%에 지나지 않았다(〈표 29〉 참조). 탁아시설에 대한 불만사항으로는 비용문제,

공간협소 및 시설불량문제, 집과의 거리문제 등이 지적되었다(〈표 30〉 참조).

그렇다면 취업주부의 출근, 비취업주부의 외출 등에서 자녀는 어떤 방식으로 돌보아 지는가? 예상대로 자녀 맡기는 방법 제1순위에서 자녀를 데리고 다닌다는 응답이 60.1%, 시댁이나 친정에 맡기는 것이 28.2%로 나타난 반면 탁아시설에 맡기는 것은 매우 저조하다(〈표 31〉 참조). 아직 자녀가 갓난 아이이므로 데리고 다님에 큰 어려움이 없을지는 모르나,

13) 현재 탁아시설에 대한 질문은 자녀가 있는 집단에만 한정됨.

불편을 감수하고 데리고 다니는 이유는 탁아시설 이용료가 상당히 부담스러우며, 시설이나 돌보는 수준을 충분히 믿을만 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2순위, 3순위에서는 이웃집에 맡긴다는 응답이 25.0%, 41.5%로 비교적 높게 나타나 상호부조적인 이웃관계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추론은 비취업주부의 취업의사에서도 가능

하다. 현재 비취업인 이유는 자녀양육문제 때문이 65.5%로 나타났으며 이것이 해결되었을 경우 취업하겠다는 의사는 89.1%로 나타나, 앞으로 기혼여성의 취업증대추세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그 동네 부인들의 노동력을 적절히 이용하는 훌륭한 시설의 탁아시설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짐작된다(〈표 32〉 참조).

〈표 31〉 자녀 맡기는 방법 빈도(%)

자녀맡기는 방법	1 순위	2 순위	3 순위
탁아시설	5(2.7)	3(3.1)	11(20.8)
시댁이나 친정	53(28.2)	31(32.3)	16(30.2)
이웃집	9(4.8)	24(25.0)	22(41.5)
데리고 다님	113(60.1)	34(35.4)	1(1.9)
보모가 집으로 옴.	8(4.3)	4(4.2)	3(5.7)
계	188(100)	96(100)	53(100)
무응답*	76	168	211

* : 자녀없는 경우 포함.

〈표 32〉 주부취업문제 빈도(%)

비 취 업 이 유	취 업 의 사
본인이 원하지 않음.	Yes 123(89.1)
남편이나 기타가족원이 원하지 않음.	No 15(10.9)
자녀양육문제 때문.	
기타	
계	계 138(100)
무응답	무응답 126*

* : 무응답에는 취업주부 포함.

5) 신혼주거에 대한 선호

앞에서는 현재 신혼가계의 생활 및 주거실태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검토하였다. 본 조사연구의 목적상 조사대상의 의식조사는 중점연구문제가 아닌긴 하나 몇 가지 사항에 대해 현재 신혼가계들이 어떤 선호를 지니는가를 간단히 살펴 보았다.

먼저 신혼생활의 경험에서 주거에 대해 어떠한 선호나 의식을 형성하게 되었는가를 보면(〈표 33〉 참조), 1) 무조건적인 자가소유 - 임차이나 높은 주거수준, 2) 개방적인 거실 - 폐쇄적인 또 하나의 방, 3) 불박이로 짜여진 가구 - 취향에 맞게 개인구매하는 가구의 세 가지 상쇄관계(trade-off) 사항에 대해 자

가소유선호는 67.2%로 월등하긴 하나, 앞의 희망주거분석에서 자가소유 계획비율보다는 상당히 낮다. 시설이 우수하고 안정적이기만 하다면 굳이 자가소유하지 않아도 된다는 실리적인 사고가 젊은 세대에서 형성되고 있음을 반영한다.

또한 과거 기성세대의 주거규범과는 달리 작은 방들을 많이 가지기보다는 특 트이고 자유로운 공간사용이 가능한 거실구조를 68.3%가 선호한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사회의식이 자유롭고 개방적인 분위기로 확대되고 있으며, 과학기술발전에 따라 굳이 벽으로 공간구획을 확정짓지 않아도 실내환경에 문제가 없으며, 핵가족화, 주택규모 소형화의 추세에 따

〈표 33〉 신혼주거선호 빈도(%)

소유형태와 주거수준	공 간 구 조	가 구
내집을 소유 176(67.2)	큰거실 179(68.3)	불박이 155(59.4)
좋은집 임차 86(32.8)	작은방 하나더 83(31.7)	취향에 맞게 106(40.6)
계 262(100)	계 262(100)	계 261(100)
무응답 2	무응답 2	무응답 3

라 개별가족원사이의 프라이버시 문제가 비교적 완화됨과 동시에 좁은 공간을 보다 넓게 사용코자 하는 의도 등을 반영한 것으로 생각된다.

가구문제에 있어서도 모든 가구를 취향에 맞게 새로 구비하고자 하는 선호가 예상보다 낮은 40.6%로 나타난 반면 비용이 같더라도 불박이 가구로 공급된 것을 선택하겠다는 응답이 59.4%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취향을 살릴만큼 가구를 갖추고 실내를 꾸미고 살기에는 신혼생활이 아직 정착된 생활이 아니라 하나의 과정으로서의 성격을 지니며, 잦은 이사에서 개별적으로 구입한 가구 특히 장농 등을 일일이 옮기는 것이 매우 번거롭고 낭비적임을 경험했으며, 혼수물품으로 여러가지 가구를 구비하는 것보다는 그 비용을 주거상승에 보태는 것이 현명함을 알게 되었기 때문으로 추론된다.

이상과 같은 실리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는 일상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생활용품을 개별적으로 보유하는 것보다는 공동으로 구비하여, 원하는 때에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응답이 44.3%나 나타난 것

에서도 알 수 있다(〈표 34〉 참조). 또한 손님초대에 대량으로 음식을 준비할만한 대형가사공간을 개별확보하는 것은 비경제적이며(35.7%), 집 밖에 공동으로 마련되어 있으면 좋겠다(20.5%)는 응답률이 비교적 높은 것도 신혼생활경험에서 형성된 합리적인 사고로 추정된다.

이러한 사고는 불박이가구선호와 특별한 가사용품의 공동사용에서 주부의 학력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데(〈표 35〉 참조) 학력이 낮은 주부의 경우,

〈표 34〉 가사공간과 옴품의 선호 빈도(%)

가 사 용 품	대 형 가 사 공 간	
개별소유선호 146(55.7)	반드시 개별 확보.	37(14.1)
빌려쓰기선호 116(44.3)	개별 확보 선호.	78(29.7)
	개별 확보는 비경제적.	94(35.7)
	집밖에 있으면.	54(20.5)
계 262(100)	계	261(100)
무응답 2	무응답	1

〈표 35〉 주부의 취업여부와 학력에 따른 신혼주거선호**

변 수	집 단	월평균 가계총소득			부 인 학 력		
		100만원 미만	100 - 160만원 미만	160만원 이상	고졸 이하	전문대졸·대학중퇴	대졸 이상
신혼주거의 가구 선호	불박이가구	51 (51.5)	61 (59.2)	40 (74.1)	38 (41.8)	33 (71.7)	79 (67.5)
	취향대로	48 (48.5)	42 (40.8)	14 (25.9)	53 (58.2)	13 (28.3)	38 (32.5)
	계	99 (100.0)	103 (100.0)	54 (100.0)	91 (100.0)	46 (100.0)	117 (100.0)
	X ²	7.37*			17.79***		
가사용품 마련의식	개별소유 선호	60 (60.0)	60 (58.3)	25 (46.3)	67 (74.4)	30 (63.8)	45 (38.5)
	빌려쓰기 선호	40 (40.0)	43 (41.7)	29 (53.7)	23 (25.6)	17 (36.2)	72 (61.5)
	계	100 (100.0)	103 (100.0)	54 (100.0)	90 (100.0)	47 (100.0)	117 (100.0)
	X ²	2.92			28.19***		

* p<.05 *** p<.001

** : 나머지문항은 유의한 차이가 없어 표는 생략하였다.

취향에 맞는 가구마련과 개별적인 가사용품보유를 선호하고 있다. 이는 비교적 진보적인 생활양식에 대한 수용태도가 학력에 따라 다르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6) 이웃환경에 대한 선호

앞의 실태분석에서 탁아시설 이용도는 현저하게 낮았으나 자녀문제가 주부의 취업 및 기타활동에 큰 장애가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탁아시설이 신혼주거단계에 필수적인 것임은 재론의 여지가 없겠으나 과연 어떠한 요건이 필수적으로 갖추어지길 원하는가가 관건이라 하겠다.

본 조사에 의하면, 우선 공간이 넓고 깨끗하며 시설이 좋아야 한다는 응답이 95.5%나 된다(〈표 36〉 참조). 이는 대부분의 개별주거가 협소하여 자녀들이 마음대로 활동할만한 공간이 못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전문보모가 충분해야 한다는 점은 93.4%가 응답하였다. 놀이방 보모의 자질을 믿을 수 없다는, 그리고 보모의 수가 부족하여 제대로 아이들을 돌보지 못한다는 염려에서 이러한 생각이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탁아시설이 집에서 가까와야 한다는 응답은 87.9%로 나타났다.

이상의 세 가지 요건들에 비해서는 2-3시간부터 2-3일 정도까지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에는 72.2%, 비용이 저렴해야 한다는 것에는 65.9%가 응답하였으며, 특히 이웃주부들의 자원봉사활동은 오히려 크게 원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탁아시설의 인력은 전문보모와 이웃주부의 조합으로 조달하는 것이 무난할 것으로 생각된다. 탁아시설요건 중 찬반의견이 고르게 나타난 비용, 이

웃주부봉사의 2문항을 가계소득과 주부학력으로 분할표분석한 결과(〈표 37〉 참조), 예상대로 저렴한 비용에 대한 긍정적태도는소득이 낮은 집단에서 유의하게 많이 나타났다. 반면, 이웃주부의 자원봉사는 소득에 따른 차이는 없고 주부의 학력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데 학력이 낮은 집단에서 찬성의사가 더 높다. 학력이 높은 주부들은 전문적인 교육을 중요시하는 반면 학력이 낮은 주부들에서는 자녀를 돌봐주는 정도로 만족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그 외에 다양한 공동시설을 통해 여러가지 주거기능을 사회화시킴으로써, 주거를 개별가족의 생활공간만으로 확보코자 하는 생각에 대해 분석해 보면, 운동공간, 여가·취미공간, 유아원·탁아시설에 대해서는 각각 62.5%, 65.1%, 58.9%가 이용하겠다는 적극성을 보였다(〈표 38〉 참조). 한편 큰 규모의 시설과 넓은 공간이 필요한 가사(예를 들어 이불빨래)를 위한 공동작업장, 많은 손님을 초대하거나 주무시게 할 때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동집회실 등은 21.6%, 29.4% 정도가 적극적 이용의사를 보였다. 그러나 공동식당에 대해서는 5.9%만이 이용의사를 표명하였다.

운동공간, 여가·취미공간, 탁아시설 등은 어느 정도 사회에 널리 보급된 시설이므로 홍보가 충분해서 적극적인 이용의사가 형성될만한 것인 반면, 공동작업장과 집회실의 경우 대중적 홍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긍정적인 태도가 나타난 것은 젊은세대들의 생활양식과 사고방식의 결과로 생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사라는 것이 단순한 영양공급 외에 여가와 단란의 의미도 있고 한 술에서 밥을 먹는 것이 가족(식구)이라는 우리의 강한 전통 때문에 공

〈표 36〉 탁아시설요건

빈도(%)

	그래야 함	보통	그렇지 않아도됨	계	무응답
가까운 거리	217(87.9)	29(11.7)	1(.4)	247(100)	17
전문보모	228(93.4)	12(4.9)	4(1.6)	244(100)	20
넓고 훌륭한 시설	236(95.5)	11(4.5)	.	247(100)	17
비용 저렴	162(65.9)	74(20.1)	10(4.1)	246(100)	18
이웃주부들의 봉사	72(30.0)	91(37.9)	77(32.1)	240(100)	24
다양한 프로그램	177(72.2)	55(22.4)	13(5.3)	245(100)	19

〈표 37〉 배경변수에 따른 탁아시설요건 견해의 분할표분석

변 수	집 단	월평균 가계총소득			부 인 학 력		
		100만원 미만	100 - 160만원 미만	160만원 이상	고졸 이하	전문대졸·대학중퇴	대졸 이상
비용 저렴	그래야 함	73 (77.7)	63 (67.0)	23 (43.4)	68 (79.1)	28 (63.6)	63 (57.8)
	보 통	19 (20.2)	28 (29.8)	25 (47.2)	17 (19.8)	15 (34.1)	38 (34.9)
	그렇지 않아도 됨	2 (2.1)	3 (3.2)	5 (9.4)	1 (1.2)	1 (2.3)	8 (7.3)
	계	94 (100.0)	94 (100.0)	53 (100.0)	86 (100.0)	44 (100.0)	109 (100.0)
	X ²	19.00***			12.36*		
이웃주부 자원봉사	그래야 함	33 (36.3)	30 (32.3)	9 (17.6)	26 (31.7)	15 (35.7)	30 (27.5)
	보 통	37 (40.7)	33 (35.5)	19 (37.3)	44 (53.7)	10 (23.8)	35 (32.1)
	그렇지 않아도 됨	21 (23.1)	30 (32.3)	23 (45.1)	12 (14.6)	17 (40.5)	44 (40.4)
	계	91 (100.0)	93 (100.0)	51 (100.0)	82 (100.0)	42 (100.0)	109 (100.0)
	X ²	9.22			20.46***		

* p<.05 ** p<.01 *** p<.001

〈표 38〉 공동시설 이용의사

빈 도(%)

	이용안함	보 통	이용함	계	무응답
운동공간	12(4.6)	85(32.8)	162(62.5)	259(100)	5
여가, 취미공간	9(3.5)	81(31.4)	168(65.1)	258(100)	6
유아원, 탁아시설	21(8.1)	85(32.9)	152(58.9)	258(100)	6
공동식당	143(56.3)	96(37.8)	15(5.9)	254(100)	10
공동작업장	85(33.3)	115(45.1)	55(21.6)	255(100)	9
공동집회실	78(30.6)	102(40.0)	75(29.4)	255(100)	9

동식당에 대해서는 거부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의사는 가계소득과 부인의 학력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¹⁴⁾

14) 각 견해별로 분할표분석을 실시하였으나, 유의한 차이를 보인 항목이 없어 지면상 표는 생략하였다.

IV. 결 론

본조사에서 나타난 사항을 바탕으로 신혼가계의 중요한 특성을 간단히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서울과 수도권지역의 신혼가계는 비교적 가구주 교육수준이 높으며 자가용보유율이 매우 높다.

2. 이들의 경제상태는 가구주의 학력과 주부의 취업에 따라 월평균총소득에 차이가 나며 시대이나 친정으로부터의 이전소득이 자주 나타난다. 주부가 취업하고 있는 경우라 해도 일부 전문직 취업주부를 제외하고는 가구주의 소득이 총소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지출구조에서는 월평균저축의 절대액과 총지출중 비중이 매우 높으며 재형저축이나 청약저축, 보험 등의 저축형태가 보편적이다. 총저축잔고는 5백만원-1천만원 정도, 현주거의 시가는 1천만원-3천만원 정도이다. 총부채액을 파악하진 못했으나 부채상환을 위한 규칙적인 지출이 많지는 않다. 소득수준에 따라 지출비중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소득이 높은 집단에서 식료품비비중은 낮으나 교통통신비의 비중은 높다. 한편 월평균 저축액의 비중은 소득이 높은 집단에서 오히려 낮게 나타나 이들의 소비수준이 비교적 높음을 알 수 있다.

3. 주거자금구조에서 신혼주거 및 현주거 모두 시대이나 친정에서의 보조가 절대적인 자금원이며 저축이나 용자 등은 매우 미미하다. 신혼주거와 현주거의 총자금액 및 부모의 조달비중은 모두 부부의 학력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여, 학력이 높은 신혼가계가 주거자금을 부모에게 의존하는 정도가 더 높다. 주거조절계획에 있어서는 저축과 용자의 이용계획이 비교적 높아지긴 하나 아직도 시대·친정에의 의존경향을 보인다.

4. 신혼주거와 현주거의 실태와 변화를 보면 아파트 선호가 확실히 두드러지며, 될 수 있는대로 넓은 자기집을 소유하고자 하는 경향이다. 또한 각종 설비가 비교적 잘 갖추어져 있으며 독립적인 생활공간을 확보하고자 애쓰고 있다. 신혼주거와 현주거의 유형, 소유형태, 규모 모두 부부의 학력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여, 학력이 높은 신혼가계가 더 넓은, 아파트를 소유 혹은 독채로 전세들 확률이 높다. 신혼가계는 대부분 어떤 형태로든 주거조절계획을 수립하고 있어 강한 주생활수준 상승욕구를 알 수 있다. 또한 신혼주거와 현주거에서 중요한 요인이었던 부부의 학력보다 현재의 추가계소득이 미래의 주거조절계획에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등장하였다. 신혼가계의 주거입지는 직장과의 거리, 교통편리, 시대·친정과의 거리 등이 중요한 결정요인이다. 탁아시설의 이

용도는 매우 저조하며 자녀를 데리고 다니거나 시대·친정에 맡기는 경우가 많으며 여의치 않을 때는 이웃에 맡기는 경우도 많다.

5. 신혼주거선호는 현주거 상태와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여 자유로운 분위기선호와 합리적이고 진보적인 생활의식이 나타난다. 즉 시설 좋은 임대주택, 잘 짜여진 불박이 가구와 록 트인 거실구조에 대한 선호가 비교적 높았으며, 대형가사공간 및 접대공간, 비밀상적인 생활용품 등의 공동사용도 긍정적으로 수용되고 있다. 이러한 진보적 수용의사는 주부의 학력이 높은 집단에서 더 강하게 나타났다. 그 외 시설이 좋고 다양한 프로그램의 탁아시설과 여가생활 공간, 자가용보유에 필요한 주차 및 세차시설의 필요도가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의 결과에서 볼 때 신혼가계의 독특한 생활양식을 반영할 수 있는 주거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1. 먼저 자금면에서 다양한 용자 프로그램을 구비하며 자가나 월세보다는 전세형태의 임대주택도 고려해야 하며,
2. 각종 가전제품, 가구, 수납공간 등을 불박이로 마련하여 개별마련비용을 줄임과 동시에 공간의 효율적 사용을 기하며, 주문식 선택사양으로 최대한 개별가계선호를 반영하도록 하며,
3. 벽체, 문, 창 등도 주문식으로 합과 동시에 가변형구조로 하여 생활분위기 전환이 가능토록 하되 개방적인 평면구조로 설계한다.
4. 공동시설로는 주차 및 세차시설, 다양한 프로그램의 훌륭한 탁아시설, 각종 여가시설, 공동가사작업장 및 공동집회실 등을 구비해 놓는 것이 좋을 것이고
5. 취업의사가 있는 주부들의 노동력을 이용할 수 있는 집단적 부업프로그램도 마련해 볼만하다.

끝으로 신혼주거마련과 생활에 있어 부모에게 의존하는 정도를 줄이고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경제생활이 가능하도록 결혼적령기세대와 그 부모세대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세대의 경제력과 주부의 취업상태를 독립변수로 채택하지 않았으나 연구결과에서

미루어 볼 때 추후의 연구에서는 이 변수들이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현재 신흥가계 외에 가까운 장래에 신흥가계를 형성할 직장인, 대학생, 고교졸업반 등도 연구대상으로 포함하면 앞으로 우리사회의 경제생활구조 및 주거선호변화를 추론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참 고 문 헌】

- 1) 공세권 등, 한국가족구조의 변화 - 가족생활주기 조사를 중심으로, 한국인구보건연구원, 1987.
- 2) 국토개발연구원, 거주기준설정에 관한 연구, 1986.
- 3) 김대년, 홍형욱, "주거생활주기모형설정을 위한 이론적 접근", 한국주거학회지, 창간호, 1990, pp. 37-48.
- 4) 김미향, "도시주부의 저축의식에 관한연구",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4.
- 5) 김양군, "도시가계의 금융자산선택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5.
- 6) 김용채, "소득수준과 거주수준의 상관적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6.
- 7) 김정훈, "인구 및 경제적 변수가 도시가계 소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분석",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4.
- 8) 대한주택공사, 수요특성에 따른 소형공동주택 개발연구, 1987.
- 9) 배성일, "생애주기에 따른 주거선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2.
- 10) 백설희, "도시가계의 저축행동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4.
- 11) 서병숙, 임혜경, "가정생활주기에 따른 가계변동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권 1호, 1984, pp.35-55.
- 12) 신경주, 주거학, 수하사, 1989.
- 13) 오찬욱, "사회인구학적 변인 및 물리적 환경변인과 주거적응행태와의 관계",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3.
- 14) 유영주, 이순형, 홍숙자, 가족발달학, 교문사, 1990.
- 15) 유영주, 홍형욱, "가족생활주기 모형설정과 주거의식 및 행동에 관한 연구", 경희대논문집 12, 인문사회과학편, 1983, pp.43-72.
- 16) 윤복자, 신화경, "주택내부공간의 기능성에 대한 만족도 조사연구-서울시아파트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권 1호, 1984, pp.165-177.
- 17) 이기춘, 가정경제학 - 가계행동의 분석과 이해, 교문사, 1992.
- 18) 이은상, "서울시민의 주거선호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7.
- 19) 임종성, "우리나라 가계저축의 실태 및 유인정책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6.
- 20) 전한중, 박용환, "집합주택에 있어서 Life-Cycle에 따른 거주자들의 주생활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3권 3호, 1987, pp.81-92.
- 21) 정기준, "민간소비지출의 구성의 변화에 관한 일 분석", 국민은행 조사월보, 145호, 1983, pp.8-15.
- 22) 조성기, 김일진, 주거학, 동명사, 1990.
- 23) 조희금, "가정생활주기에 따른 가계의 저축형태 분석 - 대구시 주부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권 1호, 1984, pp.57-66.
- 24) 최현자, "가정생활주기에 따른 농가경제 분석",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6.
- 25) 하성규, 주택정책론, 박영사, 1991.
- 26) 홍두승, 김미희, "도시중산층의 생활양식 - 주거생활을 중심으로", 성곡논총, 19집, 1988, pp.485-533.
- 27) 홍향숙,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가계의 소비생활 문제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9.
- 28) 황명찬, 박헌주, "임차가구의 생애단계별 주거행태, 의식 및 선호의 분석 연구", 주택, 43호, 1983, pp.30-44.
- 29) 황운숙, "우리나라 주택경제의 실태와 주거비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74.
- 30) Anderson, Alan R., "Life status change and changes in consumer preferences and satisfaction",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Vol.11, 1984, pp. 784-794.

- 31) Fried, Marc, " Residential attachment: Sources of residential and community satisfaction", Journal of Social Issues, Vol.38, No.3, 1982, pp.107-119.
- 32) Hinshaw, M. and K. Allott, " Environmental preferences of future housing consumers", Journal of the American Institute of Planners, Vol.38, 1972, pp.102-107.
- 33) Kreibich, V. and A. Petri, " Locational behavior of households in a constrained housing market", Environment and Planning A., Vol.14, 1982, pp.1195-1210.
- 34) Morris, E. W. and M. Winter, Housing, family, and society, N.Y.: John Wiley & Sons Inc., 1978.
- 35) Stampfl, Ronald W., "Rhythms of change: Social movement, consumer education, and meta issues.", Proceedings of 26th Annual Conference, American Council on Consumer Interest, pp.18-25.
- 36) Webber, M. J., "Life cycle stages, mobility, and metropolitan change : 1.Theoretical issues", Environment and Planning A., Vol.15, 1983, pp.293-305.